

음악교육의 철학적 사고에 대한 최근 경향*

-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

주 대 창**

본 연구는 음악교육 철학의 발달 상황을 알아보는데 그 초점이 있다. 저자는 북미 지역의 관련 문헌을 추적하여 그 배경과 용어 설정 및 주변 영역과의 위상을 정리하고, 그 주요 흐름을 살펴보았다. 음악교육 철학의 형성 초기에 미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룬 결과로 전통적 예술 교육 주장으로 여겨지는 미적 교육이 한 동안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이후 실제 삶에 나타나는 음악 및 그 활용의 다양함을 수용하려는 시도가 실제적 철학이라는 새로운 경향을 탄생시켰다. 미적 교육과 실제적 철학 사이의 논쟁은 한편으로 전자의 상대적 비중 감소를 가져왔으며, 다른 한편으로 두 경향이 양립하는 이원적 상황을 이끈다.

※ 주제어: 음악교육 철학, 미적 교육, 실제적 철학, 미국 음악교육

차 례

I. 서 론

II. 음악교육 철학의 성장

1. 용어 사용의 배경
2. 관련 분야로서의 음악 철학
3. 음악교육 철학의 출현
4. 음악교육 철학의 정착

III. 음악교육 철학의 진로

1. 유용성 문제와 철학적 프레임
2. 미적 교육과 음악교육 철학의 관계
3. 새로운 방향의 탐색

IV. 결 론

* 본 논문연구는 2012년도 광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I. 서론

음악교육학은 기본적으로 현장의 교육활동을 염두에 둔 학문이다. 현장의 음악 교육자들은 음악교육학의 한 분야로서 음악교육 철학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그런데 이 분야가 새롭게 나타난 관계로 그 기본 흐름을 파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특히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그 발달 과정의 조망이 멀게 느껴지는 실상이다.

본 연구는 북미 문헌에 나타난 음악교육 철학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 음악교육 분야의 철학적 논의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음악교육 철학이 기본적으로 언어적 개념을 통한 사변적 논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한 그 발달 역사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관련 문헌에 나타난 표현이나 주장들이 논리적 일관성에서 때로 엉켜있음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루려는 음악교육 철학은 문자 그대로 음악교육에 대한 ‘철학(philosophy)’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문헌의 논의들에 한정한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음악교육의 가치 등을 언급하면서 철학적 논의를 하고 있더라도 음악교육 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문헌은 연구 범위의 밖에 둔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음악교육 철학의 탄생과 그 최근 흐름에 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개별 관점에 대한 조망이 주류를 이루었다. 본 연구의 주된 논점이 전반적 흐름의 도출에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연구 상황은 곧 본문에서의 주요 고찰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찰은 연구의 양적 효율화를 위해 내용적 논쟁의 판단으로부터 되도록 거리를 두며, 그러한 주장의 심층적 소개나 검증은 또 다른 연구 작업의 대상으로 여긴다. 다음에서 먼저 음악교육 철학이 어떻게 등장하였는지, 특히 그 초창기의 용어 형성 및 관련 연구물의 발표 현황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음악교육 철학의 새로운 방향 탐색에 내재된 의미적 흐름 도출에 집중할 것이다. 같은 내용 또는 주장을 담은 문헌의 경우 초기의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Ⅱ. 음악교육 철학의 성장

1. 용어 사용의 배경

음악을 공교육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그 교육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말한다. 사교육에서의 음악교육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그 당위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공교육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실시되는 만큼, 왜 음악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음악교과는 사회화의 한 도구였다. 음악교육에 대한 이념들 역시 그 사회 또는 집단의 것과 일치한다. 특히, 고대 그리스 및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에게서 발견되는 음악교육 사상은 건전한 사회 체제의 유지가 그 바탕에 놓여 있었다. 예컨대 플라톤(『국가』)과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의 음악교육론은 그들의 주요 활동 근거지였던 아테네의 실제 통치 체제가 아니라 스파르타식의 도시 국가를 염두에 둔 훌륭한 통치 집단, 즉 군인들의 양성에 초점이 있었으며, 유가(儒家)의 예악 사상은 군자(君子)의 품성이자 통치 원리인 조화의 예(禮)가 음악에 들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한다(『예기』, “악기”). 그래서 그들은 음악의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예는 21세기의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 또는 사회에 따라 음악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특히 민주 인권 사회의 이념이 퍼지면서 음악교과는 그 당위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했다(주대창, 2008). 서양의 경우, 근대의 계몽주의가 보편적 교육, 나아가 공공 음악교육의 당위성 제공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음악 및 음악교육에 접목되면서 철학적 사고는 음악교육 활동에서 그리 낮설지 않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이러한 당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제시하기 위한 분과의 하나가 음악교육 철학이다. 음악교육 철학은 용어 구조로 보면 그 안에 몇 가지 관련 분야를 담고 있는 복합어이므로 각각의 의미 부여 및 역할 설정에 따라 종합적 의미가 달라진다. 이를테면, 음악이 무엇인

지, 교육이 무엇인지, 나아가 철학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진다.

인상적인 것은 음악교육 철학에 대한 관점이 교육 쪽에서 도출되기보다 음악 쪽에서 더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교육 관련 사상에 나타났다. 과거에 실기 위주의 음악 교사들이 아마 그들의 교육적 배경이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당시 제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던 탓이었을 수 있다. 오늘날 음악교육 철학이라는 표현 및 영역 설정이 음악에 더 밀착된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음악교육의 고유성을 음악교육 담당자의 입장에서 확보하려는 의도와 연계된다. 실제로 철학자 또는 교육학자들이 음악교육에 집중적 관심을 가지고 그 철학적 바탕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음악을 인간의 총체적 문화물의 하나로, 좁게 잡아도 예술의 한 분야로 여기기 쉽고, 관련 철학의 형성 과정에서 그들의 종합적 입장을 뒤로 한 채 음악만 끄집어 낼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하여 음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는 음악의 중요성을 먼저 부각하여야 음악교육의 명분이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 더 편한 구도이다.

2. 관련 분야로서의 음악 철학

음악교육 철학을 논하기 위하여 먼저 음악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부담은 용어 설정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문헌의 출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음악 철학이라는 표현이 앞서 사용되었고, 이어서 음악교육 철학이라는 용어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하나 눈여겨 볼 대목은 문자 그대로의 관점에서 음악교육 철학에 대응하는 음악 철학의 역사 역시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음악학 쪽에서 철학적 논의와 관련한 학문 분야를 미학(美學 aesthetics)라고 지칭해 왔던 것과 관련이 있다.

미학은 원래 인간의 감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바움가르텐(A.G. Baumgarten)이 제시했을 때 ‘감성학’(aesthetica)의 의미였다. 그는 예술의 주된 특징의 하나가 감성 관련성이라고 보고, 인간의 인식을 감성과 이성

의 양대 축으로 설정하였다. 감성의 독자성을 구별해 낸 것이 바로 미학의 탄생인 셈이다. 그런데 감성적 인식이 완전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표기하면서 감성학은 현장에서 미(美)에 대한 학문으로 여겨졌다. 예술이 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구도가 잡히면서 음악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곧 ‘미학(美學)’으로, 서양에서는 여전히 ‘aesthetics(영), Ästhetik(도)’, 지칭되어 왔다.

음악 철학이라는 표기는 음악 미학이라는 학문 내용이 상당 부분 자리를 잡은 이후에 나왔다. 물론, 무엇이 음악 미학과 음악 철학의 차이인지 규명하는 일은 여전히 학자들의 과제로 남아 있다. 흔히, 음악 미학은 음악을 설명해 내는 방향의 탐구이고, 음악 철학은 음악의 근본을 설정하여 그 당위성을 제공하는 계열로 이해되기도 한다(주대창, 2007). 하지만 아직 그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개 음악 철학 관련 문헌에는 음악 미학적 사항이 함께 나타나고, 음악 미학 문헌에는 음악의 의미 규정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룬다.

음악 철학이라는 표기가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의 문헌에서 확인된다. 폴(W. Pole)은 당시까지의 음악 이론적 사항을 정리한 그의 저서에 『음악 철학』(*The philosophy of music*, 1879)이라는 제목을 부여하였다. 그는 음악 철학을 음악 이론의 종합체로 이해한 듯하다. “만약 하나의 체계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최상의 진실한 의미에서 ‘음악 이론’이 될 것이다.”(p.3). 따라서 그의 명명법은 오늘날의 용어 사용과 차이가 나며, 적어도 본질과 가치를 따지는 철학 계열에 속하지는 않는다. 음악 철학이라는 표현의 실질적 효시는 아도르노(T.W. Adorno)의 『신음악의 철학』(*Philosophie der neuen Musik*, 1949)으로 여겨진다. 그의 용어 사용은 관념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A. Schopenhauer)의 “음악의 형이상학”(Methaphysik der Musik)을 연상시킨다(1859, §52). 오늘날 음악 철학은 영어권에서 일반화된 명칭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음악 철학의 주제들』(*Themes in the philosophy of music*, Davies, 2003), 『음악 철학 개론』(*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music*, Kivy, 2002), 『음악 철학 에세이』(*Essays on the philosophy of music*, Bloch, 1985), 『인본적 음악 철학』(*Humanistic*

philosophy of music, Lipmann, 1977), 또는 『철학적 음악 고찰』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music*, Bowman, 1998) 등이 출판되어 활용되고 있다.

음악 미학이라는 표현은 미학을 예술 관련 학문으로 규정하고, 예술 종류들 가운데 음악의 고유한 면을 대응시키려는 노력에서 나왔다. 그 이전에는 대개 미학의 범위 안에서 음악 관련 사항들이 함께 논의되어 왔다. 음악 미학이라는 제목의 초기 출판물은 리만(H. Riemann)의 『음악-미학 교리서』 (*Katechismus der Musik-Ästhetik*, 1890)로 여겨진다. 그의 용어 사용은 이전의 『음예술 미학』 (*Ästhetik der Tonkunst*)이라는 표현을 잇는 것으로 보인다(Engel, 1884; Wallaschek, 1886).

음악 미학 분야의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한슬릭(E. Hanslick)의 문헌은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Vom Musikalischen-Schönen*, 1854)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적 아름다움의 설명에 미학이라는 명사형 대신 “미학적-음악적”이라는 수식어를 잠시 쓰고 있을 뿐이다(p.28). 그의 견해가 이후 음악의 고유성 확립에 기여하였고, 나아가 음악교육에서 미학적 형식주의(formalism) 내지 절대주의(absolutism)의 바탕을 제공한 면이 있으나(Abels et al., 1994, p.72), 그는 그것을 철학이나 철학의 한 분야인 미학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근래의 음악교육 문헌에서 음악교육의 철학적 바탕을 논할 때 철학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미학이라는 용어가 지속적으로 쓰인 점은 이러한 용어 사용 현황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3. 음악교육 철학의 출현

전반적으로 보면, 음악교육 철학이라는 표현은 출판물의 제목으로 매우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만큼 그 활용 근거와 범위 설정이 쉽지 않음을 암시한다. 현상적으로 보면 1970년에 출판된 리머(B. Reimer)의 『[하나의] 음악교육 철학』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이 그 효시이며, 이후 뜨거운 논쟁과 함께 그 대안으로 1995년 발표된 엘리엇(D. Elliott)의 『뮤직 매터즈. [하나의] 새 음악교육 철학』 (*Music matters. A new*

philosophy of music)이 그 전부에 속한다. 그 외의 문헌들은 하나의 음악 교육 철학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지니기보다 그러한 논의를 진행시키는 소재 또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철학을 표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테면 『음악교육 논평』(*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review*)은 학술지의 명칭이다. 또한 음악교육 철학 분야의 연구물들을 묶은 옥스퍼드 핸드북은 음악교육 철학이라는 표기 대신 『음악교육에서의 철학』(*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in music education*)을 택하고 있다.

음악 교육자들 사이에서 음악교육 철학이라는 표현은 20세기 전반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Earhart, 1936, p. 405; Morgan, 1938, p. 439; Buttelman, 1940, p. 72). 그러나 이들 문헌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채 단어 조합만 나타난다(Kopkas, 2011, p. 264). 그러므로 시대적 흐름에서 음악교육 철학이라는 용어 설정과 연구 영역의 구축은 20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인상적인 점은 1950년대에 음악 교육이 전체 학교 교육의 테두리에서 자주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음악 교육자들 입장에서 음악교과가 다른 교과와 같은 선상에 놓이면 구별된 철학을 제시해야 하는 과업을 안게 된다. 부수적 교과로 밀려 나지 않기 위해 전문성을 강조해야 하는 음악교과의 입장에서 다른 교과의 당위성에 그대로 음악이라는 단어만 없어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출판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1953년 『교육』(*Education*)이라는 교육 종합 간행물에 기고된 레온하드(C. Leonhard)의 “음악교육-미적 교육”이라는 글이며, 다른 하나는 1958년 『전국교육연구협회 제57회 연감』(*The Fifty-seven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으로 나온 『음악교육에서의 기본 개념들』(*Basic concepts in music education*)이다.

레온하드는 위에서 언급한 예술교과 특집호에서 적절한 음악교육 철학의 대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면서 “미학적으로 유효한 음악교육 철학의 개발(to develop an aesthetically valid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을 역설하였다(1953, 25). 그의 사고는 음악교육 철학이 음악교

육의 정당성 제시의 바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 방향을 탐색하던 초창기의 흐름을 대변한다. 하지만 음악교육 철학과 음악 미학 사이의 개념적 마찰은 용어 설정의 딜레마였다. 그는 1953년의 문헌에서 음악교육의 철학을 곧 미적 교육으로 설정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1955년 “철학 그리고 미학”이라는 연구에서 두 개념의 구별을 시도한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한편으로 논의의 확장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숙성되기 전의 용어 사용 현황을 보여준다.

미학, 특히 음악 미학의 내용과 범위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영어권의 당시 상황은 레온하드의 표현에서 미학을 “Esthetics”라고 표현한 데서도 엿보인다. 바움가르텐의 “aesthetica”는 독일어권에서 “Ästhetik”으로 연착륙했지만, 영어권에서는 “Æsthetics” 또는 “Esthetics”가 오늘날의 표기와 혼재하였다. 레온하드는 철학과 미학의 구분을 문로(T. Munro)의 예시에 따른다. 당시 문로의 시도는 미학의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있었다.

문로의 견해를 음악교육에 적용한 레온하드에 의하면 “음악교육자-철학자(music educator-philosopher)”와 “음악교육자-미학자(music educator-esthetician)”의 구분이 가능하다. 전자는 “음악적 지식, 음악적 노고, 미학, 그리고 음악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된 음악교육 분야의 전체 영역에 걸쳐 진리와 원리들을 고찰”하고, 후자는 “음악 예술과 그것을 작곡하고, 연주하고, 듣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술”한다(Leonhard, 1955, p.23). 그는 음악 미학적 접근과 관련하여 특히 음악심리학적 접근 가능성을 강조한다. 아마도 그는 음악교육에서의 철학이 형이상학적 접근에 의한 본질 탐구에 가깝고, 음악교육에서의 미학이 가치 설명을 위한 비평 추구와 유사하다고 본 듯하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그는 음악 교육자들이 철학 및 미학 분야를 등한시해 왔다고 주장하며 연구 주제 분야의 구체적 제시를 시도한다(p.24-25).

단행본의 형태로 출간된 『음악교육에서의 기본 개념들』은 그 제목이 말해주듯이 음악교육의 본질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음악교육에서의 철학적 접근이 그 선두에 놓임은 당연하다. 이 간행물은 크게 제1절 “배경

분야들(disciplinary background)”과 제2절 “학교에서의 음악(music in the schools)”로 나뉘는데, 음악교육 철학에 대한 논의는 앞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전반적으로 음악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 정립의 필요성 및 철학적 접근 방향을 소개하는 가운데, 듀이(J. Dewey)의 실용주의 관점과 사회학적 접근에 따른 생활화 시도가 눈에 띈다. “음악교육에서의 실용주의”라는 고찰에서 맥뮐리(F. McMurray)는 음악 교육자들을 위한 원천으로서의 철학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음악교육의 목적을 현장의 활동과 연계하여 논의하고 있다(pp.30-61). 또한 음악적 경험에 대한 철학적 고찰(McKay, 1958, pp.123-139) 및 음악적 성장에 대한 조명도 다루어지고 있다(Mursell, 1958, pp.140-162).

음악교육 철학의 출현과 관련하여 용어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연구는 브로디(H.S. Broudy)의 “현실적 음악교육 철학(A realistic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이다(pp.62-81). 한국어 번역어에서 ‘음악교육 철학’이라는 표현의 일관성을 위하여 ‘현실적’을 부득이 앞에 위치시켰으나, 원래의 의미는 ‘음악교육의 현실적 철학’이 될 것이다. 그의 연구가 의미 있게 비춰지는 첫째 이유는 레온하드가 지나가듯이 사용한 음악교육 철학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제목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전 또는 다른 문헌들에서는 철학과 음악교육을 병립시키면서 음악교육에 도움이 되는 철학적 사고를 찾아보려는 신중한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독립된 용어로 제목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유한 연구 관심사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그는 음악적 경험의 본질을 점검하고, 비록 그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음악교육 철학의 진로가 관념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실제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의 싹을 이미 그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 점이 음악교육 철학의 발달 관점에서 이 논문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하는 둘째 이유이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접근은 뮐러(J.H. Mueller)의 음악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다(pp.88-122). 그의 방대한 분량의 논문은 음악 교육의 실용성에 대한 바탕을 제공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비록 제목이 사회학적 접

근을 우선하고 있으나 철학적 성찰을 통한 음악교육의 사회 관련성 부각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음악의 고유한 가치가 사회의 본질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대목이 주목을 끈다. 아울러 그의 “교양 교육(liberal education)”에 대한 언급은 음악 교육과 일반 교육의 공조를 떠올리게 한다(p.91). 이것은 미학을 탄생시킨 바움가르텐의 “미적 진실”(p.100)과 도덕 관련성, 또는 미적 교육의 창시자인 쉴러(F. Schiller)의 자유 교육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사고의 방향 안내에 치중한 그가 관념적 구조나 배경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어서 그의 안내에서 구체적 철학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또한 “취향의 다원적 개념에 대한 접근(pluralistic concept of taste)”은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과 닮아 있다(p.108). 그의 요지는 음악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요소를 전제하므로 음악교육의 방향이 학생의 사회화에 대한 교육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사회화에 대한 주제는 이후 철학적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 위치에 있다가, 이후 음악교육 철학으로서의 미적 교육에 대한 반작용이 강하게 나타날 때 내용적으로 재조명되는 경향을 보인다.

4. 음악교육 철학의 정착

음악교육 철학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 노력을 기울인 조젠슨(E.R. Jorgensen)은 1980년대 말에 이를 위한 뉴스레터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음악교육 연구에서 이미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실천적 역점에 상응하는 철학적 노고 없이는 그 전문성이 개념적으로 부족함을 지닐 것이며 실천적 연구 역시 결과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1988, p.1). 조젠슨은 단순한 의견이나 불충한 주장보다 잘 다듬어진 논의가 철학적 탐구의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음악교육 철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철학적 행위의 과정이 무엇인지도 탐구할 과제로 남는다. 특히 음악교육 안에서의 철학이 어떤 역할과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 나아가 철학이 실천적 연구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Jorgensen, 1988, p.3).

음악교육 철학 연구의 양적 확대에는 무엇보다 1993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전문 학술지 『음악교육 철학 논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2012년 출간된 옥스퍼드 핸드북 『음악교육에서의 철학』은 이 분야의 종합적 논의를 조망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이전부터 다양한 음악교육 안내서에서 음악교육 철학을 언급해 오고 있던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레온하드와 하우스(R.W. House)는 1959년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에서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Philosophical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라는 장(chapter)을 두고 있다. 음악교육 철학에 대한 그들의 개관은 철학이 본질적으로 뜻하는 바를 살펴보고 음악교육에서 그러한 사고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후 1972년의 제2판에서도 이 방향의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

영어권의 대표적 음악교육 개론서의 하나인 『현대 음악교육』(*Contemporary music education*)에서 마크(M.L. Mark)는 음악교육에 관한 철학과 심리학을 “현대의 지적 흐름들(Intellectual currents in the contemporary era)”이라는 장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문헌은 특이하게 철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의 접목을 강조하는 구성을 보인다. 즉, 철학적 논의가 심리학을 매개로 실제에 접목된다는 견해이다(1996, p.54). 그는 기본적으로 미학을 철학의 한 분야로 보는 전통적 관점 아래, 미적 교육과 인지 심리학이 현대에 들어서서 발달하였다고 말한다. 그의 관점은, 원래의 미적 교육에 대한 조망 없이,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에서 논의된 미적 교육을 그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마크에 의하면, 1950년대 초 실용주의 교육이 쇠퇴한 이래 음악교육 분야에서 중심적 철학은 존재하지 않으며, 점차 리머가 주장하듯이 미적 교육이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는다(1996, pp.55-60). 그의 기본 관점은 음악교육 철학이 공리주의 입장에서 미적 입장으로 진화했다고 보는 것이다(1982). 이어 양쪽으로 움직이는 두 경향의 추를 아우르는 “더 중심적 철학(a more central philosophy)”에 대한 요구가 부분적으로 있었으나(Phillips, 1983, p.30), 미적 교육이 곧 공리적 입장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

로 보는 것이 대세를 이룬다. 마크는 그의 『현대 음악교육』의 제3판에서 당시 막 출간된 엘리엇의 『뮤직 매터즈. 하나의 새 음악교육 철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을 뿐, 그 철학적 논쟁에 대한 판단에서는 물러나 있다(1996, p.61).

또 하나의 대표적 개론서인 『음악교육의 기초들』(*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은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라는 독립된 장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서는 철학의 대표적 조류를 세 가지로 압축하여 전한다. 즉, 합리주의, 경험주의, 실용주의가 그것들이다(Abeles et al., 1994, pp.41-63). 이 책은 특이하게 철학적 기초와 별개로 “음악교육의 음악적 미학적 기초”라는 장을 설정하고 있다. 그의 분류는 이전의 논의들(*Basic concepts in music education*, 1958)을 잇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채택한 명명 방식인 “관련주의(referentialism)”, “표현주의(expressionism)”, “형식주의 또는 절대주의(formalism or absolutism)”는 이후 한국의 음악교육 관련 문헌에서도 매우 중요한 논점들로 자리 잡는다(이흥수, 1990; 1992). 그런데 에이블레스(H.F. Abeles et al.) 등이 내세우는 미학적 접근은 음악 듣기(listening to music, ‘음악 감상’)에 초점이 있다(1994, pp.67-73). 따라서 그들의 서술은 미학 또는 미적 교육을 예술에 관한 것으로 국한시키고, 미학적 성찰이 곧 음악미를 수용하는 인지적 활동의 하나라는 해석에 준한다.

이 방향은 펠프스(R.P. Phelps)의 『음악교육 연구 안내』(*A guide to research in music education*)에서도 관찰된다. 그는 철학적 탐구와 미학적 탐구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위 구조가 상이하다. 철학적 접근을 위하여 그는 형이상학과 철학의 위상, 그리고 철학적 체계와 분석 및 기법까지 안내하고 있는 데 비하여, 미학적 접근에 대하여는 성찰적 사고, 분석적 과정, 접근 방법들, 그리고 미학적 도구들(aesthetic methods)을 다루고 있다(1986, pp.103-142).

철학과 미학을 각자 다른 테두리에 넣어 고찰하려는 방향은, 적어도 미적 교육과 관련하여, 이후 리머와 엘리엇이 서로 듣기 교육 또는 연주 교육에 치우친 철학이라고 상대를 비판하는 단초 제공의 성격을 갖는다

(Reimer, 1996; Elliot, 1997). 또한 미적 접근을 음악 듣기, 즉 예술 음악 중심의 감상 교육과 관련시킨 것은 음악교육 분야에서 초창기부터 북미의 철학적 접근이 보여주는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방향의 찬반과 관계없이, 음악교육 철학에 대한 논의의 씨줄이 현재까지는 미적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Ⅲ. 음악교육 철학의 진로

1. 유용성 문제와 철학적 프레임

북미 지역에서 음악교육 철학의 산실과 같은 역할을 했던 연감 『음악교육의 기본 개념들』의 후속판으로 1991년 출간된 『음악교육에서의 기본 개념들 II』(*Basic concepts in music education II*)은 그 문헌의 상대적 비중이 앞의 것에 못 미치지만 여전히 당시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여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문헌에서 음악교육 철학의 방향 설정에 관한 숙고는 계속된다. 그 주된 논점은 역시 음악교육 철학의 유용성 문제로 보인다.

음악교육의 의미와 진로를 탐구하는 데, 그리고 나아가 음악교육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를 되새기는 데 음악교육 철학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전제 아래에서도 음악교육 철학이 현실의 음악교육에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이 용어의 태동기에서부터 숨길 수 없는 고민거리로 여겨져 왔다. 이를테면 레온하드가 음악교육 철학의 “개발(develope)”을 추구하면서 “유효한(valid)”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이나(1953), 그가 철학과 미학을 나누어 생각해 본 것(1955), 나아가 『음악교육의 기본 개념들』의 첫판에서 “현실적” 음악교육 철학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그 예로 볼 수 있다(Broudy, 1958).

앞에서 언급한 브로디의 논문은 『음악교육의 기본 개념들 II』에서 다시 편집되어 게재된다. 그리고 음악교육에서의 실용주의를 다루었던 맥뮤

리의 논문은 “실용적 주제의 변형(Variations on a pragmatic theme)”라는 제2부를 더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곳에서 그는 음악교육에서 실용주의 노선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여전히 질 높은 음악의 향유라는 목적을 염두에 둔 방법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불균형 상태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교육이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로잡는 도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McMurry, 1991, p.69). 그의 견해는 예술을 세속화하지 않고 세속 즉 대중을 예술로 끌어들이려는 성찰을 현실적 철학의 한 방안으로 보게 한다.

전반적으로 음악교육의 실용성에 대한 논의는 철학과 미학을 분리하여 생각해 보게 하거나, 미학적 접근을 실천적 관점에서 고민해 보거나, 또는 철학 자체를 현실적 문제와 묶어서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듀이의 미적 경험에 대한 논의(*Art as experience*, 1934)가 이미 화제로 자리 잡은 것과, 예술교육에 접목된 철학의 본보기로서 쉴러(F. Schiller)의 미적 교육(*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1794)이 동기를 제공했을 수 있다. 음악교육 철학의 논의에서 미적 경험은 자주 반복되는 논거이며, 쉴러의 미적 교육은 초창기부터 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소개되어 왔다. 다만, 음악교육 분야에서는 듀이의 접근 및 랭거(S. Langer)의 상징주의 계열을 잇는 리머의 미적 교육 주장에 비하여 쉴러의 아이디어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미적 교육은 쉴러에게서 비롯되었고, 그는 이를 건전한 사회화의 도구로 여겼다. 그렇다고 하여 북미에서 미적 교육에 대한 원래의 논의들이 전혀 소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드 가모(C. De Gamo, 1913)는 미적 교육을 설명하면서 리머 및 칸트를 언급하고 있으며, 쉴러 수용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이 학술지 『미적 교육 저널』(*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1966 창간)에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철학이 여러 하위 분야로 나뉘는 상황에서, 미적 교육의 일반화는 음악교육 철학이 어느 분야와 우선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철학의 주요 분야에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또는 윤리학 등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철학 체계 안에서 유기적 일관

성을 갖는다. 이를테면 인식론을 도외시하고 존재론을 이야기하기 어려우며, 가치론 역시 상위의 철학적 프레임을 전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음악교육 철학에서도 나름의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가장 흔히 언급되는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에서, 왜 음악교육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려면, 인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흔히 음악의 본질과 가치에서 음악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다(Alpers, 2001, p.215; Elliott, 1995, p.18; Reimer, [1970] 2003, p.ix; Bowman & Frega, 2012, p.19). 하지만 음악의 본질이 세상의 본질과 동떨어질 수는 없으며, 그 가치 역시 인간의 일반적 가치와 별개이기 어렵다. 음악이 아닌 교육 쪽에서 당위성을 가져오려고 해도 그 관계성은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악교육 철학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소한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째, 인간의 존재와 음악의 존재를 연결할 수 있는 존재론적 시스템이 필요하며, 둘째, 음악적 의미를 밝힐 수 있는 인식론이 요청되고, 셋째, 그것이 왜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설명해 낼 수 있는 가치론이 따라 와야 한다. 어느 종류의 음악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등은 모두 다음 단계의 숙고에 속하며, 이른바 방법론적 접근을 이룬다.

음악교육 철학에서 특히 부담을 갖게 되는 부분은 일반적 철학 문제에 음악을 덧씌워야 한다는 점이다. 음악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본질 내지 세상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만큼 음악의 당위성, 나아가 음악교육의 당위성 제시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치 음악에 도취하여 그 안에서, 그들의 시각으로 의미를 찾는 음악 종교가 되기 쉽고, 그 종교 밖의 사람들은 그러한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동감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음악 밖의 테두리를 음악에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음악과 더불어 그러한 포괄적 테두리를 형성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사교육 또는 취미 교육 수준의 음악교육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으로 받아야 하는 공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을 생각하면, 특히 세 번째 문인 가치 관련성 확보에서 음악교육의 철학적 조명은 이중

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음악의 일반적 활용 가치를 넘어서 ‘교육’의 가치를 들춰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교육 철학의 한 분야로서 그리고 음악철학의 한 분야로서 음악교육 철학이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음악교육에 관한 철학적 연구물들의 경향을 조망하던 슈와드론(A.A. Schwadron)의 방식대로 음악교육 철학 대신 “음악교육에서의 철학 및 미학(philosophy and aesthetics in music education)”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1984). 그럴 경우 음악교육 고유의 철학이 아니라 음악교육에서 차용 또는 응용 가능한 모든 철학적 논제들을 포함하는 합집합이 되어버릴 수 있고, 그 모호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2. 미적 교육과 음악교육 철학의 관계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교육 철학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향이 미적 교육이다. 미적 교육이 음악교육 철학으로 거론되는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첫째, 미학이 철학의 한 분야이고 그것이 예술에 대한 철학적 조명이므로 음악을 교육적 매개체로 사용하는 음악교육에 정당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하지만 이 관점에는 매우 큰 간극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을 매끄럽게 해명해 내지 못하면 논리적 비약성을 피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 가지의 전제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미학이 과연 예술만을 상대하는지, 모든 음악이 과연 예술인지, 그리고 음악의 미학적 해명이 곧 음악의 교육적 해명을 대신해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둘째, 철학 분야에서 미학이 출현한 후 그러한 접근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육의 한 방편으로 제시한 선례를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계열은 앞에서 언급한 쉐러의 미적 교육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계몽주의 시대 이후 본질에 충실한 인간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를 추구하려는 사조이다. 그런데 쉐러의 미적 교육은 원래 음악 활동이나 미술 활동 등의 구체적 행위를 교육적 관점에서 설명해 낸 것이 아니라, 칸트(I. Kant)의 목적론적 인식론을 이상적 사회 추구에 적용한 원론적 논의

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본질적 방향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 그대로의 사변적 논의이므로, 실제 소리로 울리는 음악 내지 음악 문화를 대입했을 때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위의 두 점검 시각은 철학과 미학의 근본적 성격을 돌아보게 한다. 철학은 이 세상 및 인간에 대한 큰 틀의 체계가 필요하고, 미학은 그 철학의 한 분야로서 특정 영역에 관심을 기울인다. 만약 음악 분야에 이 구도를 응용하면, 음악 철학은 음악과 인간 및 세상에 대한 종합적 성찰을 관장하는 영역이고, 음악 미학은 그 안에서 특정 주제들을, 이를테면 음악적 아름다움 등을 다루는 영역일 수 있다. 문제는 음악교육 분야에서 과연 이러한 구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키비(P. Kivy)는 “철학과 관련하여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든 조합이 하나의 분과를 형성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2002, p.2). 만약 음악교육 철학이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음악교육 미학이 가능하겠는가 그 질문이 된다. 아니라면 음악교육 철학은 미학을 갖지 않는 철학 분과가 되는 것인가? 전통적으로 철학 안에서 음악과 가장 밀접한 하위 분과가 미학이며, 그래서 일찍이 음악 미학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 구도대로라면 음악 철학을 바탕으로 음악교육 철학을 형성시키려는 의도 안에서 미학이 사라지기는 어렵다. 또한 음악교육 철학은 미학을 제외하고 무엇을 음악 철학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

현재의 언어 사용 구도에서는, 음악 철학과 음악 미학의 구도를 응용한다고 하더라도 음악교육이 미학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달기 어렵다. 미학이 예술 내지 예술적 아름다움을 다루는 철학 분과로 여겨지고 있는 이상, 음악교육은 예술이 아니며 따라서 아름다움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음악교육 행위 자체를 하나의 예술처럼 여길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젠슨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하나의 “비유(metaphor)”에 불과하다(2008). 만약 액면 그대로 그 도식이 성공하려면 음악수업뿐만 아니라 국어수업, 체육수업, 과학수업 등도 모두 예술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음악교육 철학이 음악 미학에서 자료를 가져오거나 그 체계에 의존할 수

는 있으나, 그것은 음악교육 미학이 아니라 음악 미학 또는 교육 철학에 가까운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돌이켜 보면 음악 미학이 전체 철학적 프레임에서 다소 자유롭게 음악 관련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미학이라는 용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의 의미를 약하게 갖게 되고, 아름다움 또는 그것을 관장하는 예술에 대한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된 것과 연계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흥미로운 것은 대표적 영어 사전의 미학에 대한 정의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1933년판의 옥스퍼드 사전(*The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는 “1. 감각적 인식의 조건을 다루는 학문. 2. 취향, 또는 자연과 예술에서의 아름다움 인식에 관한 철학 또는 이론”으로 정의한다. 이에 비하여 1934년 판의 웹스터 사전(*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에서는 “특히 순수 예술(fine art)에서, 아름다움(beauty) 또는 아름다운 것(beautiful)을 다루는 철학의 분과 [...]”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현재 옥스퍼드 사전의 인터넷 판(www.oed.com)에서는 “아름다움 또는 예술의 철학”이라고 밝히고 있다. 메리엄 사전의 인터넷 판(www.merriam-webster.com)에서도 미학이 “아름다움, 예술, 취향”을 다룬다고 설명한다. 물론 용어 정의의 하위 단계에서 여전히 “선형적 미학(transcendental aesthetics)” 또는 역사적 사용 용례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현대의 북미권에서 일반적으로 미학은 곧 아름다움 또는 예술 탐구 학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음악교육의 철학적 접근에서 미학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음악교육 미학이 성립되지 못하는 상황은 이후 음악교육 철학의 진로 논쟁에서 핵심적 요인이 된다. 미학에서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가져오려는 방향은 역사적 그리고 정통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다원주의 양상을 잘 담아내지 못한다. 그 핵심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학의 범위를 전통적 예술에 한정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미학을 거부하거나 그것에 제한적 의미만을 부여하려는 음악교육 철학의 계열은 더 많은 짐을 지게 된다. 다양성을 담아내고 현실성을 높이

려는 방법적 시도는 가능하나, 그것이 하나의 철학으로 성립되기 위하여 철학과의 관련성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미학은 원래 인식론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기에 교육적 가치를 목적론에 도달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집을 바탕으로 음악 관련 내용만을 살필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미학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교육적 가치를 설명해 내지 못하면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방법적 이론에 불과하기 쉽다. 또한 음악을 미학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음악의 다양성에 비하여 그 정체성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 조젠슨(1992, p.98)의 표현을 빌자면 “음악교육에서 철학을 하는 것은 때로 혼란스럽고, 불편하며, 그리고 심지어 고통스럽다(disturbing, uncomfortable, and even painful).”

3. 새로운 방향의 탐색

음악교육 철학의 발달을 위한, 원론적이면서도 피할 수 없는 미학과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가닥을 잡아 정리한 알퍼슨(P. Alpers)의 고찰은 북미에서 음악교육 철학의 진로 고민에 대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1991). 이 논문은 음악교육 철학의 고유성에 대한 직설적 질문을 제목으로 가지고 있다. “음악교육 철학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What should one expect from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방향의 진로에 대한 안내 역할도 한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엘리엇의 “실제적(praxial)” 철학은 알퍼슨의 제안적 방향 설정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알퍼슨은 세 가지 방향의 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먼저, 미적 교육을 음악교육 철학의 선구자로 여기고 그것에서 출발한 “미적 형식주의(aesthetic formalism)”를 제시한다(1991, p.220). 하지만 그는 이와 관련하여 미적 접근을 순수 미에 대한 관조로 본 듯 한슬릭 계열의 음악 내적 의미의 향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앞의 미적 교육에서 이끌어낸 “미적 인지주의(aesthetic cognitivism)”를 주문한다(p.228). 음악교육을 느

낌의 교육으로 안내하는 이 계열은 음악교육이 문화 복합체임을 잘 설명해내지 못한다. 끝으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음악 모습을 부정하고 개별 문화 속에서 음악의 의미와 가치가 다양하다는 “실제적 철학(a praxial philosophy)”을 내세운다(p.233). 이 방향은 직접적으로 미적 형식주의에 반대하는 계열이므로 음악의 미적 기능과 비미적 기능의 연결을 시도하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그의 분석과 조망은 기본적으로 미적 접근과 실제적 접근이라는 이원론적 구분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운데 위치한 미적 인지주의는 수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음악교육의 활동 수행 과정에서 미적 형식주의와 실제적 철학의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단지, 인지 능력을 어느 쪽과 우선적으로 연결시키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제적 철학은 일반적 학문 분류의 틀에 의하면 음악교육의 사회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엘리엇의 실제적 철학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한 메이데이 그룹(MayDay Group, 음악교육 철학 연구모임)의 델러스 연구서(Dallas papers)에는 그러한 수용 방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Gates et al., 2000). 하지만 철학적 틀의 관점에서 사회학적 접근은 상대적 취약성을 보인다. 미적 교육 계열은 그 출발부터가 철학적 논의에서 나왔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장자마다 그 미학적 의미의 확보에 큰 관심을 갖는다. 이에 비하여 실제적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응용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지만(Alperson, 1991, p.237; Elliott, 1995, p.14), 그 철학적 체계의 활용은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음악교육의 사회학적 조망이 하나의 철학으로 자리 잡으려면 다시 개념 설정에 집착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테면 미학적 철학(aesthetic philosophy)에서 미적 교육(aesthetic education)을 말하는 것은 철학적 논의에서 경직됨이 적으나, 실제적 철학(praxial philosophy)에서 실제적 음악교육(praxial music education)으로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거친 개념 이동에 속한다. ‘미학’은 철학의 한 분과이다. 그러나 ‘실제’는 철학의 어느 분과가 아니라 철학적 논의의 소재 또는 방향이다. 이 맥락은, ‘실제적 음악교육’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러워 보이나, ‘실제적 철학’이 하나

의 철학으로 각인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측하게 한다.

양분의 흐름은 알퍼슨의 방향 제시에 앞서 리머의 『하나의 음악교육 철학』 제2판에 대한 엘리엇(1989)의 다소 도전적인 서평에서 시작한다. 리머(1990)가 엘리엇의 의견 표명에 대하여 일반적 서평(review)이 아니라 비판(critique)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 분위기를 전해 준다. 이어서 엘리엇(1995)이 그의 책 『뮤직 매터즈. 하나의 새 음악교육 철학』에서 음악의 미적 개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럽 귀족 사회의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한 예술 음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인다(pp.22-23). 이에 대하여 리머(1996)가 엘리엇의 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엘리엇(1997)이 다시 강도 높게 대응하면서 그 절정을 이룬다.

그 핵심은 역시 음악이란 무엇인가, 즉 그것이 미적 향유만의 대상인가에 있다. 리머는 미적 교육이 특정 부류의 음악교육 활동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현장의 문제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엘리엇은 미적 관점만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음악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본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적 교육은 음악 수용, 특히 청취 형태의 향유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비판 받고, 실제적 철학은 연주 중심의 활동으로서 음악에 대한 숙고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게 한다. 하지만 양쪽 모두 포괄적 음악교육 활동을 강조하고 있어서 적용 범위보다 접근 관점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두 계열 가운데 미적 교육의 체감적 비중 감소는 북미 음악교육 철학 현황에서 당연하면서도 편치 않은 부분이다. 하나의 주장이 먼저 나오고 또 중심적 역할을 하다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만나 이목 집중의 대상에서 상당히 밀려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 음악교육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MENC])에서 발행하는 『음악교육자 저널』(*Music Educators Journal*)의 1989년판에는 리머의 “미적 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미래를 향하여”가 실린다. 그곳에서 그는 현장 교육과 관련지어 미적 교육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한다. 그런데 같은 저널의 2002년판에 “음악교육 철학: 시대의 변화”라는 글이 게재된다(Mc Carthy & Goble, 2002). 그곳에는 이전의 경향을 “미적 교육

의 전성시대”라는 격세지감의 표현으로 서술하고, 미적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새 방향으로서 실제적 철학의 등장을 소개한다.

IV. 결론

음악교육 철학은 20세기 후반에 북미에서 나타난 새로운 개념이다. 그 이전에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악에 대한 미학적 성찰 또는 철학적 숙고를 필요에 따라 수용해 왔다. 하지만 음악교육의 고유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음악교육 자체의 철학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보다 당시 음악교육이 학교 교과로서 다른 교과와 동등한 입장에서 조명받고 싶어 했던 정황을 말해준다. 다른 교과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 영역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음악교육의 사회적 합의가 약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면이 있다.

용어의 관점에서 음악교육 철학은 단어 구조에서뿐만 아니라 탄생 상황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열개를 가지고 있다. 음악 철학 또는 교육 철학의 공통 바탕 위에서 가능성을 함께 찾아야 하지만, 음악 교육자들이 음악에 더 밀착되어 있는 관계로 대개 음악의 본질과 가치에서 교육의 의미를 도출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리하여 어떤 인간으로 교육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음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반대 방향의 사고가 더 일반적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 음악교육 철학의 선두주자는 음악 미학 쪽에서 오게 된다. 이것이 용어적으로 미적 교육이라는 쉐러의 전통을 잇고 있음에도, 음악교육 분야에서의 논의는 그것과 거의 관계없이 유럽 19세기 형식 미학의 틀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흐름은 수십 년간 거의 독주 체제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 접어들어 실천적 철학이라는 사회학적 접근의 반대 경향을 만난다. 다른 교과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미 사회학적 성찰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에 속한다. 하지만 사회학적 조명은 음악

교육 철학으로 성립되는 데 아직 자체의 미숙함을 안고 있다. 이 방향은 미적 교육을 하나의 불충분한 철학이라고 여겨 그것을 밀어내는 새로운 철학으로 제시되지만, 실제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철학적 프레임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성의 수용에서 다양한 각자를 ‘다름’으로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의 ‘정제’를 추구하여 교육적 의미를 도출할 것인지가 질문으로 남는다. 철학이 그 나름의 역할을 하려면 현실을 설명하는 입장만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 삶의 의미와 연계시켜 규명하고 조망하는 본질적 원리를 함께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출판사.
- 이홍수 (1002). **느낌과 통찰의 교육**. 서울: 세광출판사.
- 주대창 (2007). **음악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태성.
- 주대창 (2008). 음악교육의 관점 변화와 현대 교과교육에서의 수용. **서양 음악학**, 제11-1, 통권 16호, 173-197.
- Abeles, H.F., C.F. Hoffer, & R.H. Klotman. 1994. *Foundation of Music Education* (2nd ed.). New York: Schirmer Books.
- Adorno, T.W. ([1949] 1975). *Philosophie der neuen Musik*. Frankfurt am Main: Suhrkamp.
- Alperson, P. 1991. What should one expect from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xxv/3, 215 - 242.
- Bloch, E. (1985). *Essays on the Philosophy of Music*. Translated by Peter Palm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wman, W.D. (1998).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Mus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wman, W.D. & A.L. Frega (Eds.) (2012).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in Music Edu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udy, H.S. 1958. A Realistic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In N.B. Henry (Ed.), *Basic Concepts in Music Education. The Fifty-seven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p. 62-8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ttelman, C.V. (1940). Straight from Los Angeles. *Music Educators Journal*, vol. 26, no. 6, 70-72.
- Davies, S. (2003). *Themes in the Philosophy of Mus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 Garmo, C. (1913). *Aesthetic Education*. Syracuse: C. W. Bardeen.
- Earhart, W. (1936). Music Education Research Council Biennial Report. *Yearbook of the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pp. 405-406). Chicago: Music Supervisors National Conference.
- Elliott, D.J. (1989).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Second Edition) by Bennett Reimer. Review of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2nd ed. by Bennett Reimer.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Newsletter*, vol. 2, no. 1, 5-9.
- Elliott, D.J. (1995). *Music Mat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lliott, D.J. (1997). Continuing Matters: Myths, Realities, Rejoinders.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no. 132, 1-37.
- Engel, G. (1884). *Ästhetik der Tonkunst*. Berlin: Wilhelm Hertz.
- Gates, J.T. et al. (2000). *The Dallas Papers of the May Day Group*. As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no. 144, 1-92.
- Hanslick, E. ([1854] 1858). *Vom Musikalisch-Schönen*. Leipzig: Rudolph Weigel.
- Henry, N.B. (Ed.) (1958). *Basic Concepts in Music Education. The Fifty-seven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rgensen, E.R. (1988). Editorial.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 Newsletter*, vol. 1, no. 1, 1-5.
- Jorgensen, E.R. 1992. On Philosophical Method. In Richard Colwell (Ed.),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pp. 91-101). New York: Schirmer.
- Jorgensen, E.R. (2008). *The art of teaching music*.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Kivy, P. (2002).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Music*. Oxford: Clarendon Press.
- Kopkas, J.M. (2011). *Soundings: Musical Aesthetics in Music Education Discourse from 1907 to 1958*. Educational Policy Studies Dissertations Paper 81. Atlanta: Georgia State University.
- Leonhard, C. (1953). Music Education-Aesthetic Education. *Education*, vol. 74, no. 1, 23-26.
- Leonhard, C. (1955). Research: Philosophy and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 3, no. 1, 23-26.
- Leonhard, C. & R.W. House. ([1959] 1972). *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 Lippman, E.A. (1977). *Humanistic philosophy of music*.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McCarthy, M. & J.S. Goble (2002). Music education philosophy: changing times. *Music Educators Journal*, vol. 89, no. 1, 19-26.
- McCarthy, M. & J.S. Goble (2005). The Praxial Philosophy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D.J. Elliott (Ed.), *Praxial Music Education* (pp. 19-5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Kay, G.F. (1958). The range of musical experience. In N.B. Henry (Ed.), *Basic Concepts in Music Education. The Fifty-seven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p. 123-13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Murray, F. (1958). Pragmatism in music education. In N.B. Henry (Ed.), *Basic Concepts in Music Education. The Fifty-seventh*

-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p. 30-6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Murry, F. (1991). Variations on a pragmatic theme. In Richard J. Colwell (Ed.), *Basic Concepts in Music Education II* (pp. 54-70). Niwot: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 Mark, M.L. (1982). The Evolution of Music Education Philosophy from Utilitarian to Aesthetic.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 30, no. 1, 15-21.
- Mark, M.L. (1996).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New York: Schirmer Books.
- Morgan, R. (1938). Music Education Research Council Biennial Report. *Yearbook of the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p. 439). Chicago: Music Supervisors National Conference.
- Munro, T. (1951). Aesthetics as science; its development in America.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IX, 161-207.
- Phelps, R.P. (1986). *A research to guide in music education* (3th ed.). Metuchen: Scarecrow Press.
- Phillips, K.H. (1983). Utilitarian vs. aesthetic. *Music educators journal*, vol. 69, no. 7, 29-30.
- Pole, W. (1879). *The Philosophy of Music*. Boston: Houghton, Osgood.
- Reimer, B. (1970, 1989, 2003).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Reimer, B. (1989). Music education as aesthetic education: toward the future. *Music Educators Journal*, vol. 75, no. 7, 26-32.
- Reimer, B. (1990). Reflections on Elliot's critique of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Newsletter*, vol. 2, no. 2, 1-8.
- Reimer, B. (1996). David Elliott's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music for performers only.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no. 128, 59-89.
- Reimer, B. (2009). *Seeking the significance of music education*.

- Lanham: Rowman & Littlefield.
- Riemann, H. (1890). *Katechismus der Musik-Ästhetik (Wie hören wir Musik?)*. Leipzig: Mar Hesse.
- Schiller, F. ([1794] 1967). *On the Aesthetic Education of Man*. Translated and edited by Elizabeth M. Wilkinson and L.A. Willoughb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openhauer, A. ([1859] 1988).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zweiter Band). Zürich: Haffman.
- Schwadron, A.A. (1984). Philosophy and aesthetics in music education.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no. 79, 11-32.
- Wallaschek, R. (1886). *Ästhetik der Tonkunst*. Stuttgart: W. Kohlhammer.

ABSTRACT

Recent Ideas of Philosophical Thinking for Music Education

Dae Chang 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utline the current trends of the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in North America. Drawing upon terminological regulation of philosophy of music, this paper tries to look over recent philosophical ideas which are found in the academic literature about music education. The author especially considers the emergence of this branch and the change of the overwhelming direction regarded as declining of aesthetic education in this field. This observation consequently shows a dualism of the philosophy in music education and still expects the development of a adequate philosophy of it.

key words: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Aesthetic education, Praxial philosophy, American music education

투고일: 2013년 5월 28일, 심사(수정): 6월 15일(7월 5일), 게재확정일: 8월 10일